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Space Case

가제 : 우주에서 생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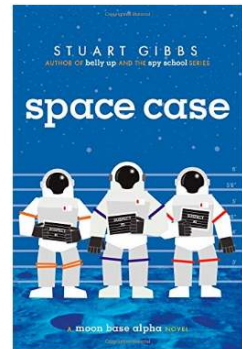
저자 : Stuart Gibbs

출판사: Simon & Schuster Books for Young Readers

발행일: 2014년 9월 1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떠나 달 주민이 된 열두살 소년, 무료하던 생활에 갑자기 발생한 살인사건

2041년 달 탐사기지에 살고 있는 데실. 지구 바깥 외계에 처음으로 마련된 인간의 서식지에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달 탐사기지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달 우주비행사’로 불리는 탐사기지 거주민들의 휴식과 즐거운 생활을 위해 엔지니어와 설계자들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달에서 사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다. 지구에서 사는 것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 너무나 많다. 물론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데실은 달 지리학자와 굴착 엔지니어인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달 탐사기지의 첫번째 공식 주민이 되었지만, 엄격한 규칙에 따라 몇 십명만 사는 이 곳은 열두살 소년인 데실이 마냥 즐겁게 지낼만한 장소는 아니었다. 하지만 어느 날, 탐사기지에 머물던 과학자들 중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지구 사이를 오가는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주민들이 이주를 해 오면서 데실의 삶은 갑자기 흥미진진해진다. 어린이가 달 표면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좁디 좁은 기지 내부에만 붙들려 꼼짝없이 머무르며 살던 데실은, 그나마 한 명뿐인 또래 친구가 가상현실 게임에 푹 빠져서 늘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때우며 지내야 했다. 과학자들 중에서도 천재로 불리며 최고로 꼽히던 홀츠 박사님이 돌연 세상을 떠나자, 데실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음모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저 박사가 헬멧을 제대로 쓰지 않고 달 표면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엄청난 발견을 앞두고 갑자기 죽은 천재 과학자, 그 비밀은 무엇이며, 왜 지키려고 했을까?

그러나 탐사기지의 규칙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규칙인 우주복 규칙을 깨고 달 표면에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데실은, 문득 홀츠 박사님이 죽기 전전날 우연히 엿들었던 수상한 전화통화 내용을 떠올리고 박사님이 중요한 무언가를 처음 발견하기 직전이었다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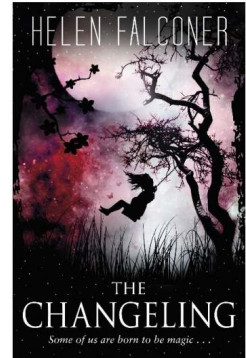
실을 알아낸다. 그리고 그것은 달 주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비밀임을 그 비밀을 지키고 싶은 누군가는 살인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깨닫는다. 과연 데실이 찾아낸 비밀은 무엇일까?

어린 소년이 우주 환경에서의 음모를 파헤치는 이 소설에는,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첫머리마다 ‘달 탐사기지 주민을 위한 공식 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나오기도 한다. ‘운동하기’, ‘식품’ 등 달 주민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참신한 안내가 나와 있는 이 소설은, 열 두 살 소년이 느낀 달에서의 낯설고 불편한 생활에 대한 투덜거림이 마치 실제 경험담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저자 소개>

스튜어트 깁스(Stuart Gibbs)는 《Belly Up》, 《Poached》, 《스파이 스쿨(Spy School)》(국내 2014년 번역 출간), 《Spy Camp》, 《Evil Spy School》 등의 책과 영화 ‘스팟(원제: See Spot Run)’, ‘Repli-Kat’의 각본을 집필했다. Nickelodeon, Disney Channel, ABC, Fox 등 TV 프로그램용 다양한 애니메이션 각본도 집필했다.

제목 : THE CHANGELING
가제 : 뒤편 아이
저자 : Helen Falconer
출판사: Corgi Childrens
발행일: 2015년 6월 4일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평범하게 살던 한 소녀가 마주하게 된 출생의 진실, 인간의 아이와 뒤편 요정의 아이

아오이페는 자전거를 세우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그만 휴대전화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돌로 세운 어느 정원의 벽 너머로 떨어진 전화기를 찾아 낮은 담장을 넘어간 아오이페는, 배터리가 분리된 채 떨어진 전화기를 겨우 찾았다. 그런데 흙 속에서 배터리를 집으려는 그 때, 하트 모양의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을 끼울 수 있는 목걸이였다. 흙을 털어내고 하트를 열어보니, 아주 오랫동안 흙에 파묻혀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딱딱하게 굳은 흙을 손톱으로 털어내자 그 작은 상자 하단에 금빛 글씨가 보였다. ‘에바.’ 참 신기한 일이었다. 아오이페의 출생증명서에 기록된 이름이 에바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다 아오이페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인 이름은 에바였다.

남은 흙을 다 털어내고 하트를 반으로 열어보니, 사진 두 장이 끼워져 있었다. 분홍빛 얼굴의 아기 사진과, 굉장히 어리지만 분명 부모님의 사진이었다. 그럼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라는 것인데, 아이오페로서는 네 살 이전의 자기 사진은 처음 본 것이었다. 가족들이 더블린에서 이사를 오면서 아이오페가 어릴 때 사진은 다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엔 페이스북도 없던 때라 온라인에 저장해 둔 사진도 없었기 때문이다. 원래 용도대로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려 했지만, 갓난아기 목둘레에 맞게 제작된 목걸이라 아주 힘겹게 겨우 채울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오페의 머릿속에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랐다. 반짝이는 날개를 단 두 꼬마 소녀가 손을 잡고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아다니는 모습이였다. 어릴 때부터 친구인 칼라와 ‘요정의 길을 따라가자’라고 이름 붙인 놀이를 하던 기억이었다. 두 사람은 너무 어릴 때라 이 길을 따라가다 다른 평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 나오는 곳까지만 갈 수 있었고, 그 길을 요정의 길이라고 불렀었다.

인간 세상에 남겨진 요정의 아이, 운명을 찾아 나선 위험천만한 여행

아주 평범한 십대로 자란 아오이페. 제일 친한 친구인 칼라가 꿈까지 꿀 만큼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자신에게 추근대는 것 말고는 별다른 걱정없이 학교를 다니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를 걱정스레 따라가던 아오이페는 다른 사람들 눈에 그 소녀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때부터 아오이페에게는 신비한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급기야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는 부모님. 아오이페가 친딸이 아니며, 두 분이 낳은 진짜 딸은 갓 난아기일 때 요정들이 훔쳐갔고, 그 대신 아오이페를 남기고 가버렸다는 것이다. 큰 충격을 받은 아오이페는 혼란에 빠지고, 그나마 그녀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농부의 아들 쉐이에게 의지하게 된다. 두 사람은 위험천만한 여행을 시작하고, 그 길목에서 지금까지 알던 요정에 관한 모든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일들을 마주하는데... 바뀐 아기와, 인간 세상에 버려져 인간으로 자란 요정 아오이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자 소개>

헬렌 팔코너(Helen Falconer)는 다팅턴 대학,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가디언> 기자로 활동하다 작가가 되었다.